제 11 권 그리스도의 영광

1.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

출처: *The Glory of Christ*, ed. R.J.K Law (Edinburgh; 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4), 2-10.
저자: 존 오웬 (1616-1683): 영국 회중 교회 목사, 저자, 신학자 영국 옥스퍼드셔 스태드햄톤에서 출생
역자: 스데반 황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

신자가 금생과 내세에 지닌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 이 영광스러운 특권은 하늘의 상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 땅의 신자들 역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나는 독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겉으로는 유다처럼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마 26:49)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으로 주를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처럼 그들은 주께로부터 영광을 빼앗고 "자기들을 사신 주"(벧후 2:1)를 부인한 후 거짓 그리스도를 섬긴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며 마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진리나 실체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의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초대 교회 때에 어리석은 사상들을 뿜어내는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많았다. 그 중 절정을 이루었던 어리석은 사상은 아리우스주의였다(주후 250/56-336년에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아리우스의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피조 되었다는 것이다. 즉, 아들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현대판 아리우스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 이후 무너지고 지금은 땅에 묻혀있다.). 그 사상이 담고 있던 지옥의 권세는 교회의 반석을 무너뜨리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위격과 영광을 대적하고 있다. 참으로 기독교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는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에 대한 불신앙은 너무 거세어서 기독교의 생명과 능력을 무너뜨려왔다.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고전 2:2) 작정한 신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온 세상에 떠벌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의 존귀함과 영광을 짓밟고 제거한 어리석고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되찾으실 것이다. 한편, 그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엡 6:24)의 의무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에 따라 주의 신성한 위격과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이 글을 통해 논쟁보다는 참된 신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나는 그들이 실제로 주의 능력을 맛보도록 돕고자 한다.

신자들이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가진 최고의 특권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첫 순간부터 주의 형상을 점차적으로 닮아가기 시작한다. 그 후 그들은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되면서 그와 같아지면서"(요일 3:2; 고후 3:18)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 현재나 장래나 복되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며 상급이다(요 14:9; 고후 4:6).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준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눈으로 직접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고후 5:7-8; 고전 13:12).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 의미는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실제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뜻하였다.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어느 정도라도 보지 못하는 자는 하늘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절대로 직접 볼 수 없을 것이다. 주의 영광을 대하려면 은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주를 뵈려면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은혜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혼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도리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주를 사랑하지도 않고 주를 만나 뵙기를 원하지 않던 자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요한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 사도들에 대해서도 쓴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자, 그들이 본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 그들이 본 주의 영광은 외적인 영광이 아니었다. 이는 주께서는 이 땅의 영광과 장엄함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왕위에 있지 않으셨고 큰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한 적도 없으셨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었지만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그의 모양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사 52:14; 53:2-3). 그는 사람들에게 "간고를 많이 겪은 자"로 비치었다(사 53:3). 이 땅에서의 그의 영광은 분명히 주의 신성에서 나오는 영원한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었다. 이는 이 땅의 그 누구도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게 될 주의 영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목격한 주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었다(요 1:14). 그들은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직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다면 그들

은 어떻게 그 영광을 보았는가? 바로 믿음이다. 이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요 1:12)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이 본 영광으로써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그러므로 스스로 속지 말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곳에서 보지 못한 자는 결코 내세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것은 너무 고상하고 영광스럽고 기이하기에 현재 우리의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란함은 가장 강렬하게 타오르는 태양보다 더 강렬하기에 현재 우리의 눈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수많은 학자들이 장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해 논하였다. 어떤 학자의 글은 찬란하고 화려한 내용으로 가득하기에 읽기만 해도 생각과 마음이 흥분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은 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 마치 거울로 내 모습을 본 후 곧바로 망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약 1:23-24). 그런데 왜 이러한 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장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믿음만이 줄 수 있는 현실의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맛보거나 느끼거나 체험하지 못한 장래의 영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괴로움이 된다. 믿음으로 먼저 그 영광을 미리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하늘에서의 영광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하늘의 것들에 대해 믿고 사랑하려 할 것이다. 현재에 맛보지 못한 것을 장래에 기대할 수 없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형상과 사진과 음악의 도움을 받아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만이 우리의 마음은 장래의 완전한 영광을 볼 것을 기대하며 그리스도께 더욱 이끌리게 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강하여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과 평강과 만족을 주는 강한 믿음과 참된 사랑을 바란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살고 죽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바라며 내 생각과 마음을 쏟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치한 아름다움에 싫증을 느끼며 더욱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내게 썩은 시체와 같아질 것이기에 더 이상 세상을 즐기며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질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천국을 위해 빚어지고 준비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고자 원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맞게 빚어지고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부터 제외된다. 이는 그들은 천국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천국에 받아지더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본성적으로 우리 자신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

다고 생각한다.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미리 체험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거의 없다. 사람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늘의 영광을 덧입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늘의 영광은 오직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 하지만 부패한 인간은 믿음을 행사할 수 없다. 청각 장애인은 음악을 즐길 수 없고 시각 장애인은 아름다운 색을 분별할 수 없다. 당신이 물고기를 바다에서 꺼내어 햇볕이 내리 쬐는 마른 땅에 둔다면 그 물고기는 결코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생하지 못한 죄인은 그리스도의 타오르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반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골 1:12)고 말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따른 전능하신 주의 행위에 의해 이곳에서는 주의 영광의 일부가, 그리고 내세에서는 주의 영광의 충만함이 신자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자가 장래의 충만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정하셨다. 그 방법과 수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의무에 힘쓰게 되고 현재 우리가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은 장래의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고후 3:18)한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은 이 글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평안을 누린다. 우리의 생각은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날뛰는 정욕과 욕망에 의해 사로잡히기 쉽다.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면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어둠이 뒤따른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은 안정과 평안을 얻는다. 이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롬 8:6)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영원토록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우리는 모든 복중에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복"(빌 1:23)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볼 것이다(요 17:24). 그분 그대로 보게 될 때는 우리가 그와 같아질 것이다(요일 3:2).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복락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지복직관"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그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지금으로써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안다. 하나님은 본성상 무한하시기에 우리의 신체의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무한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평강과 안식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맛보며 누릴 수 있다. 우

리는 주의 영광에 대해 말할 수는 있어도 다 헤아릴 수 없다. 사실, 진정한 신자는 영광스러운 이 상태를 미리 보고 맛보는 체험을 한다. 때때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쳐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느끼게 되면서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을 체험한다.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참조, 빌 4:7).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신자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참조, 골 1:27)는 장래 영광의 맛을 미리 허락하신다. 이 맛을 전혀 모르는 자들은 영적인 것들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힌 자들이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맛과 즐거움을 점점 더 풍성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르고 무지하기 때문이다.

2. 그리스도의 영광

출처: *The Glory of Christ*, ed. R.J.K Law (Edinburgh; Carlisle: The Banner of Truth Trust, 1994), 11-13.
저자: 존 오웬 (1616-1683): 영국 회중 교회 목사, 저자, 신학자 영국 옥스퍼드셔 스태드햄톤에서 출생
역자: 염지웅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다. 따라서 그가 말한 "나의 영광"은 나에게, 즉 나의 인격(위격)에 속한다(요 17:24).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영광스러운 사실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벽하게 계시하신다는 점이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보기 때문이다(고후 4:6).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성이 지닌 거룩한 특성과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포함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또는 그분의 위격을 통해서이다. 이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고후 4:4).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다(히 1:3).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골 1:15).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계시하신다. 이에 그는 특별히 영광스럽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참되게 알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생이든 내세든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요 1:18).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적인 형상이다. 그는 아버지 안에 있으며, 아버지는 그의 안에 계신다. 두 분 모두가 동일한 신적 본질의 연합 가운데 존재하신다(요 14:10). 더 나아가서, 그는 아버지의 본질적인 형상임과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요 1:1, 골 1:15, 히 1:3). 그러나 그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을 때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형상을 계시하는 대표자가 되셨으며,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관한 경이롭고 탁월한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고후 4:6).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것이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영광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분만이 홀로 천사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알려주시며, 이것이 없이는 영원한 흑암이 모든 창조세계를 덮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이며, 교회가 세워진 반석이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대한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이다. 그러므로 만약 그리스도가 실패한다면, 곧 세상의 빛인 그가 흑암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자가 된다. 그러

나 만약 이 반석이 굳게 선다면, 교회는 안전하며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주가 되신 그리스도는 탁월하게 영광스럽다. 믿음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를 알지 못한다. 비록 그들이 그분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고안한 우상을 예배할 뿐이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하고 참된 대표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불신자이다. 이것이 과거의 불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비참한 상태였다. 그들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였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볼 수도 없었다(참고, 고전 1:21-25).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길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가지는 거룩한 속성들을 보지 못하는 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불신자이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롬 4:20).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본성이 지니는 영광스러운 속성에 관한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이러한 그의 신적 본성에 관한 성질과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바르게 그리고 받으실만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따라서 마귀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이 처음에 선포될 때 사람들의 지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편견으로 가득차게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다양한 속임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신”(고후 4:3-4)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후 4:3-4). 그는 권세와 지혜를 갖춘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위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편견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고 유일하게 드러내는 참된 계시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리어짐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제거된다. 이에 바울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고 말한다(고후 4:6).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불신자들의 세상은 흑암 가운데 멸망했다. 따라서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으로 사람이심을 부인하는 이 시대의 모든 불신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단지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우리에게 참되게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도 신적인 본성을 참되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리스도의 위격

출처: 1889년 3월 31일, 주일 설교
저자: 찰스 스펄전(1834-1892): 저명한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베돈에서 출생
역자: 조상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후4:4)

복음의 영광은 우리 주의 위격의 영광 안에서 특히 많이 드러난다. 우리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롬9:5). 히브리서 1장 6절은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서 경배함이 마땅하다.

또한 우리의 구속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그 속에는 본질적인 타락의 병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자격을 더럽힐 그 어떠한 죄악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사람이 한 위격 속에 신비롭게 연합된 그의 영광을 살펴보자. 그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다.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위급한 때를 위해 나신 형제이시다(히1:3; 잠17:17).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직접 맡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친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요1:14). 이것이 복음이다. 여기에 환자들로 가득 찬 대형 병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 훌륭한 의사가 나타나 헌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그들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의사를 더 많이 칭송할수록, 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들을 돕기 위해 온 그 의사가 절대 오진을 하지 않는 지혜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기술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무한한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면, 그들은 침대 위에서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소식만으로 그들은 이미 절반은 회복될 것이다.

구원하러 오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낙담하고 절망한 영혼들이 더욱 기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그토록 신비롭고 위엄 있는 위격이야말로 복음의 기둥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는 천사도 단순한 인간도 아니다. 그는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마1:23)이시다. 그의 능력은 무한하며, 그의 영광은 무궁하다. 죄책감으로 가득차서 슬픔과 함께 죽기를 기다리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구세주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신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기초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그에겐 불가능이란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완전한 사람인 그의 인성을 의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같은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동정심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여!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한량없이 주의 성령으로 부으심을 받으신 주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요3:34). 가장 중요하게 그가 누구시고 어떤 속성

을 가지신 분인지 알려주는 그의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고 확실하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위격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 안에서도 드러난다. 다음 말을 기억하면서 그 속에 있는 복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는 사람들을 기뻐하셨다(잠8:31). 그는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희생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는 그의 예지 안에서 그의 선택된 모든 사람들을 알아보았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오, 태초에 우리의 구원자의 심장 안에서 빛났던 사랑(요1:1)! 그 사랑은 끝이 없다. 이로 인해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빛난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이 그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죄악과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13:1). 사랑! 당신은 거룩한 구세주의 마음 안에서 최고의 영광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랑의 영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변하지도, 폐하지도 않는, 바로 생명을 주는 보혈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넘치는 기쁨을 주는 반가운 은혜이다. 우리의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은 병든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고치기를 기뻐하신다. 그는 중풍병 걸린 자들과 역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 오신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다. 영광스러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 안에 놓여 있다.

사랑하는 자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성육신의 영광을 보게 된다. 우리에게,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 거하셨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 그가 목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수치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혈육의 동반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된 사실은 모든 세대를 거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의 궁핍함과 부끄러움 안에도 영광이 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 때에도 영광이 있다. 그의 피곤함과 굶주림 속에도 영광이 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루셨던 갈보리 언덕에서 압도적인 영광이 솟아나온다. 하늘의 그 어떤 것도 침 뱉음과 채찍에 맞음과 못 박힘과 창에 찔림에서 나오는 영광을 그에게 줄 수 없다. 은혜와 자비의 영광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다. 그렇기에 바로 이 사실은 죄인이라고 확신하는 무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질고를 감당하신 것을 알 때, 우리는 용서와 치유를 기대하게 된다. 동정녀에게 나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요3:17). 내가 기도하기는, 당신이 삶 속에서 선을 행하시고, 자비로운 이적을 이루시고, 쓰러진 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보살펴 주시는 그의 삶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한다. 또한 그의 삶 안에 모든 상한 심령들을 위한 복음은 없는지 스스로 물어보기 바란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보잘 것 없는 육체의 장막으로 그의 영광을 가리셨다. 그렇다면 그가 사람들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영광을 얻게 된 우리의 인성은 결코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자신을 낮추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주목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영광의 복음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속죄의 희생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은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라고 나에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영광이 된다.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옷(계19:13) 외에 어떤 옷이 주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더 어울릴 수 있겠는가? 그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사랑스럽기에 어찌하든 사랑스럽다. 하지만 피 흘리신 그 옷 그대로 입고 계실 때 가장 사랑스러우시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피땀 흘리신 그를 바라볼 때, 경외함과 뜨거운 사랑으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흘러내리는 그의 주홍빛 같은 피로 물든 그의 옷은 황제가 입었던 자주색 곤룡포보다 더 영광스럽게 빛난다. 그의 수난의 자국들을 볼 때, 우리는 그의 발 앞에 무한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된다. 죽어가는 우리를 대신할 분으로 그 보다 좋은 분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정수가 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벧전2:24).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십자가 상에서,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담당하셨다. 마치 도공의 질그릇처럼 우리를 가루처럼 만들어야 했을 여호와 하나님의 철장이 그에게 떨어졌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빌2:8). 그러한 행위를 통해, 그는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승리하셨다. 우리의 죄를 친히 덮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의 희생적인 죽음의 영광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다.

다음으로 그의 부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볼 때, 그의 영광을 좀 더 뚜렷이 알 수 있게 된다. 그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다(행2:24). 그가 죽으셨을 때 그의 거룩한 몸은 죽을 수는 있었지만 부패할 수는 없었다. 그는 무덤 속에서 잠시 주무시고 일어나신 뒤 부활하사 빛과 자유로 나아와 살아계신 그리스도로서 영광을 받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로움를 확정하셨다. 부활하신 그는 무덤을 샅샅이 뒤지셔서 죽음에 매인 자들을 풀어주셨다.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롬1:4). 그는 죽지 않으셨으며 지금도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히7:25). 이를 기뻐하자. 그가 살아 계시므로 우리도 살게 될 것이다(요14:19)!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7:25). 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진심으로 깊이 묵상하자.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죄의 사슬과 절망의 수렁, 그리고 죽음의 무덤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과 보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가지 더할 것은,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눈을 들어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는 우리를 위해 수치스러운 나무에 달리셨지만, 이제는 보좌에 앉으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의 손에 박혔던 못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그의 손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의 규를 바라보자. 모든 만물이 그의 발아래 있다. 예수, 그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시다(히2:9).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지금 그는 우리의 모든 적들을 파하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 그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 영광 중에 앉으신 그분 자신이 바로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기약대로 그 곳에 앉게 될 것을 약속하는 증표이다.

우리가 매일 바라는 그의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거룩한 바람이다. 아마도,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고”(살전4:16)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마13:43). 그렇게 되면 혀의 문제, 죄에 대한 몸부림, 다른 이들을 속이고자 했던 죄악들 등,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의 고단한 삶이 끝나게 되며 진리와 거룩만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오,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하여 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보좌에 계신 나의 거룩하신 주인의 영광과 기약대로 나타나실 그의 영광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보았듯이 우리도 그를 볼 수 있다면, 그의 발아래에서 절망의 두려움이 아닌 소망의 기쁨으로 황홀해 할 것이다.

또한 이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복음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의 신조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복음의 모든 것이 훼손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더 많이 선포해야 한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높일 때 복음도 함께 높여진다. 만일 당신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복음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 아닌 빵 껍질만 던져주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광스러운 높은 보좌에서 더 높여질수록, 그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신다. 작은 그리스도는 작은 복음만을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4. 그리스도의 사랑

출처: *None Like Christ* (New York: Anson D. F. Randolph, 1868), 28-40.
저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1808-1878): 탁월한 복음 설교자 및 저자. 영국 펜톤빌에서 출생.
역자: 정영진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대조적 연상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사랑이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사랑의 원천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와 하늘의 하강의 요인이고, 하나님을 반사한다. 영혼이 신적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닮는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함으로 불구가 되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고상하고 아름다운 형태의 사랑의 고향이다. 깊은 경외감 없이 창조를 주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누가 어머니의 사랑 앞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사랑의 위엄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사랑의 위력에 이길 수 있겠는가, 그 부드러움에 녹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과 동등한 사랑,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 더 나은 사랑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당신의 대조를 시작해보라.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삶의 관계 중에서 선택해보라. 그중에서 관대하고 고귀한 행동으로, 부드럽고 감동적인 표현으로, 가치 있는 귀한 희생으로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장 깊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선택하라. 그것을 당신을 택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란히 놓아보라. 즉, 당신을 속죄하고 부른 사랑, 당신을 달래주며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차가워지지 않는 사랑, 손을 절대로 거두지 않는, 그러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엡3:18)을 나란히 두라. 그 사랑은 이기심의 정반대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랑 중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하고, 강하다. 그 사랑은 필적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다. 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은 없도다. 그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자.

1. 그리스도의 사랑은 드러내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의 베일을 벗기고, 그 마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다.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의 사랑이 없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가장 부드럽고 온화한 그리스도의 심장박동을 느낀 믿음의 영혼을 가진 참회자는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경이로움을 그의 발 앞에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이해한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낮추는 사랑은 없다. 베들레헴에 가서 그 겸손을 보라. 그리고 돌아와서 겟세마네에서 멈추어 그 슬픔을 보라. 그리고 갈보리에 가서 수치와 저주와 우울과 황폐와 고문과 십자가의 붉은 피를 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낮아짐이 얼마나 낮추신 것인가! 또한 여전히 낮추고 계신다. 당신의 모든 상황에 맞게 낮추신다. 이제 당신은 취소되지 않을 죄책에 대한 혼란이 없고 가벼워지지 않을 죄의 압박은 없다는 것을 의식한다. 또한 치유되지 않을 십자가의 상처가 없으며 닿을 수 없는 슬픔의 깊이가 없고 밝아지고 힘을 얻을 수 없는 어둡고 외로운 길도 없다는 것도 의식한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많이 거하는 곳은 어디일까? 당신이 그 사랑을 자주 만날 수 있고 항상 만날 수 있을까? 그렇다. 그곳은 바로 죄로 인해 깨어지고 통회하며 겸손해진 마음이다.

3.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희생적 사랑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5:2). 그의 삶은 얼마나 힘겨운 삶이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던가? 그의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은 그의 사랑으로 부어지는 대속과 사랑의 표출이다. 그는 깨진 율법의 모든 교훈에 순종했고, 요구된 의에 대한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다. 베들레헴에서 갈보리로 그를 인도한 길은 굴욕과 모욕, 시련과 고난을 이어가는 외로운 길이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폭풍과 더 커져가는 천둥소리, 그리고 점점 더 번쩍이는 번개는 마침내 십자가 주위로 다 모여 큰 공포로 하나님의 아들을 짓눌렀다! 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주께서 이루신 이 일보다 더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주께서 낮아지신 그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겠는가? 주께서 당한 슬픔보다 더 어두운 슬픔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희생을 보여주고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십자가가 어디 있는가?

4.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용서하는 사랑은 없다.

상함을 통한 용서는 진정한 애정의 필수요소이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이 같은 순간에 그리고 같은 가슴에 '단호함, 무자비함, 용서 없음'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유일하고 고상한 열정이고 또한 그것의 본성과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신성하기에 우리는 모든 고귀하고 고상하며 가치 있는 감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기심, 악의, 복수, 무자비함,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은 우리의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의 열정으로서 매우 혐오스럽고 수치스럽다. 그것들이 진정한 사랑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한 순간이라도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더 고상한 형태, 더욱 숭고한 사랑의 체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났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실 수 없고, 용서하실 수 없다(우리는 경건하게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들의 모든 개개인을 자비로 바라보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마5:45)"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확장된다. 그의 영원한, 특별한, 구속의 사랑으로(모든 죄에 대한 은혜롭고 충만한 영원한 용서로) 확장된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사랑하면서 그 존재를 엄격한 복수의 심판의 손에 넘길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애정의 대상이 아무리 낮고 가치 없더라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다.

나의 독자여!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느낀다면 비록 당신의 애정이 단지 연기나는 재나 꺼져가는 불꽃과 같더라도 이것을 확신하라.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으며(요일4:19) 지금도 사랑하신다. 그가 당신을 용서하셨으며 지금도 용서하신다. 그는 당신이 그의 영광을 보며 그의 임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그의 하늘왕국으로 이끄실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용서하는 사랑은 없다. 인간의 사랑은 순식간에

주저하고 흔들린다. 인간의 사랑은 잘못이 가해지고 부상을 입고 여전히 피를 흘리게 될 때, 신뢰를 배신 당하고 감정이 찢기고 우정이 농락당하였을 때 침묵 가운데 슬픔을 말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자(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의 죄를 잊었을지라도)를 받아들이고 포용하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는 그의 백성의 죄의 모든 어두움을 없애고, 제거하고, 지우셨다. 그리고 그것들은 더 이상 그의 기억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마18:21-22).

나의 독자여, 용서하는 제자와 용서하는 구주의 사랑을 대조해 보라. 그리고 다음을 읽어보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미7:18)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온화하고 오래 참으며 견디는 사랑은 없다. 계속해서 당신은 그 사랑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사랑에 상처를 주고 그 사랑을 저버렸다. 당신은 반복해서 눈물과 고백 가운데 겸손함으로 그 사랑에 돌아왔고, 그때마다 당신은 그의 사랑은 그의 본성처럼 따스하고 변함없음을 발견하였다. 그의 사랑은 당신의 의심을 견뎌왔고, 당신의 불평에 침묵했고, 당신의 연약함을 감싸주었고, 당신과 당신의 보이지 않고 완악한 적 사이에서 당신을 수천 번 사랑하였다. 그의 사랑은 당신의 변덕에도 줄어들지 않았고, 당신의 냉기에 얼지 않았으며, 당신의 뒷걸음질을 비난하지 않았고, 당신의 방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 그 사랑은 신성하며 모든 것을 감싸는 완전한 보호로 당신 곁에서 함께 하시며 돌보셨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

모든 무릎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경배하고, 모든 입술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해야 한다. (1) 그리스도의 권세에 항상 반역해왔던 마귀와 악한 자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부르짖을 것이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출14:25). 언젠가 마음이 굳은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도망치고 산에게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계6:16) 우리를 가리라고 외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완악한 원수들은 그들의 입으로 악의와 분노를 내뱉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추기경이 배교자 줄리안에게 말한 것같이 "갈릴리야,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다. (2)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은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들의 주로 모시고 찬양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창조주와 구세주로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호산나"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을 그들의 주와 주권자로 인정할 것이다. 그의 면류관을 그의 발 앞에 놓고 영원토록 할렐루야 노래할 것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5:12-13).
- 윌리엄 테일러
~~~~

5. 그리스도의 직분

출처: 『존 플라벨 목사 전집, 제6권』 “웨스트민스터 총회 소요리 해설”에서 발췌
저자: 존 플라벨(약 1630-1691년): 영국 장로교회 목사로 잉글랜드 우스터셔주 브롬스그로브에서 출생.
역자: 안선형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중(二重)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1. 우리 구세주는 어떠한 상태와 조건으로 계시는가? 그리스도는 이중 상태로 계시는데 다시 말하면, 낮아지셨고 또한 지극히 높아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빌 2:8-9).

2. 낮아지시고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직분은 몇 가지인가? 그리스도는 세 가지,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3.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분을 맡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며, 우리는 모두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고전 1:30).

4. 그리스도의 한 직분만 인정하고 다른 직분은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한 직분이 주는 유익을 누리려면 반드시 세 직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사도행전 5:31).

5. 어떤 면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분을 보여주는가? 마치 그리스도의 직분이 샘의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6. 선지자 직분에서는 어떤 약속이 비롯되는가? 진리를 알게 하도록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방향을 지도하는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서 비롯된다.

7. 제사장 직분으로는 어떤 약속이 비롯되는가? 용서와 화평과 관련된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서 비롯된다.

8. 왕의 직분에서는 어떤 약속을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모든 약속을 기대할 수 있다.

9. 그리스도의 직분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헤아려 볼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골로새서 2:10).

10.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위선자의 어리석고 비참한 처지를 알 수 있다.

11. 세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직분에서 홀로 주 예수님만이 존귀하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져본 적이 없다.

12. 그리스도의 직분이 알려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사려 깊은 행위이며 많은 숙고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 성령을 계시함으로써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신다.

1.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인간은 본성이 무분별하고 무지하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전 2:14).

2. 그 외 어떤 의미가 더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모든 빛의 근원이심을 알게 해준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후 4:6-7).

3. 그리스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가? 그리스도는 외적 계시와 내적 조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행 3:22).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5).

4. 그렇다면 굳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칠 도구로써 사람을 세우시며 전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12).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

다”(행 26:18).

5.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가? 전혀 알 길이 없다. 자연을 통해 보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6. 그리스도께 선지자 직분이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행 3:22).

7. 선지자 직분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기에 그 누구도 타고난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시 19:7).

8.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복음이 선포되어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후 4:3-4)

9. 세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기도는 구원을 주시는 지식을 얻게 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

10.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이 알려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빌 3:8).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고 계신다.

1.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대체로 어떠한 일인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려는 대속하는 일이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

2.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직분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두 가지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희생제물인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다.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히 7:25).

3.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진노하신 공의에 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히 9:26).

4.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에서 여느 제사장들과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다른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리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5. 두 번째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 기존의 제사장들은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으나 그리스도는 단번에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히 10:14).

6.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제물로 드리셨는가? 자기의 몸을 드리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 10:10). 또한 영혼까지 바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사 53:10).

7. 그리스도가 드리신 희생의 효력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리스도의 영혼과 몸이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행 20:28).

8. 그리스도의 희생 효력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행 13:39).

9. 두 번째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

리요 하시니라”(눅 23:31).

10.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죄에 대해 스스로 속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시 130:3).

11. 마지막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화평한 양심 위에서만 터를 다진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히 9:14).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으로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여 주신다. 그리고 그분과 우리의 대적을 제압하시고 정복하신다.

1. 그리스도의 왕국은 몇 부분으로 존재하는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하나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누가복음 17:21). 또 다른 하나는 외적으로 온 세상 위에 존재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엡 1:22).

2.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회의 영원한 구원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요 17:2).

3. 그리스도는 왕의 권세를 어디에다 발휘하시는가? 그분과 우리에게 대적하는 원수를 제압하시는 데 사용하신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시 76:10).

4. 그 외 어디에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는가? 원수로 둘러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하는 데 사용하신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출 3:3).

5. 그리스도는 어떠한 수단을 쓰시는가?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사용하여 일하신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히 1:14). 또한 사람도 사용하시는 데,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신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계 12:16)

6. 그리스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지극히 높은 권세로 다스리신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6). 또한, 완전한 지혜로 다스리신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엡 1:11).

7.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교회는 온갖 위험 가운데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렘 30:11).

8.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평안한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대하 16:9).

9.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음모는 반드시 패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사 54:17).

10. 네 번째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성도는 범사에 전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11. 마지막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노예 같은 태도를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사 51:12).

~~~~

믿음은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도구이다.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 엄청난 원리를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 관해 얘기할 때 다른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도 전적으로 무지하다고 단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내적 조명을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구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이는 영적인 대상은 오직 영적인 기관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엡 1:17-18).
- 옥타비우스 윈슬로우 -
~~~~

6.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출처: *Rock of Our Salvation*, 179-197, Sprinkle Publications.
저자: 윌리엄 플러머(1802-1880): 미국 장로교 목사이며 저자. 미국 펜실베니아 그린스버그 출생
역자: 장 아브라함

구원자의 낮아지심에 관한 성경의 어조는 강경하다: 그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7-8). 이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요약으로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경이로움이요 노래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이 땅에서의 우리 주님의 모든 역사는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의 실천의 연속이었다.

우선 그 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처했던 초라한 환경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그 분의 어머니의 남편은 기능자였는데, 일반적으로 목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마 13:55). 우리 주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윗의 후손이셨다(눅 2:4). 하지만 이 가족은 아주 낮은 위치로 떨어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같은 다윗의 후손들은 그들에게 아무 관심이나 예우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을 위해 지어진 헛간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를 낳아, 그 아기를 강보에 쌓아 구유에 뉘였다. 여관에는 남은 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눅 2:7). 게다가 그녀가 그를 데려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녀의 손에 들린 제물은 가장 부실한 것들이었다.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눅 2:24)이었다. 모세의 율법은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한" (레 12:8) 사람들을 위해 그런 부실한 제물들을 허용했다. 이와 같이 여자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여자가 지독한 가난과 극심한 홀대에 처해있었다. 그녀의 첫째 아들은 그러한 운명을 같이 짊어졌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하나뿐이다. 즉, 거룩하신 아기 예수이시다.

우리 주님이 탄생했을 때 그 분은 어린 아기의 연약함을 모두 갖고 있었다. 다른 여느 어린 아기들과 다름없이 그 분은 무력했으며 의존적이었다. 성령님의 계시로 드러난 역사는 그 분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눅 2:52)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분은 유년기의 시련들을 겪으셨다. 잔혹하고 무자비한 헤롯 대왕은 그 분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기 무섭게 그 분을 죽이고자 안간힘을 쏟았다. 그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없애버리려는 열망 속에서 자기 영토의 한 지역에 사는 어린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 하지만 적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통해 그 어린 구원자는 그처럼 직면한 악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바로 애굽(성경에서 '라합'과 '리워야단'이라고 표현된)으로 도피한 것이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잔인하고 타락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대대로 내려오는 뿌리깊은 증오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지금, 그들의 땅은 이 복된 가족에게 유대의 그 어느 마을이나 도시보다도 훨씬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 주었다.

애굽에서 돌아온 그들은 나사렛에서 정착하였다. 어떻게 된 건지 그곳은 배척과 멸시를 받아온 그런 지역이었다. 심지어 그 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던 나다나엘조차도 통상적인 혐오의식에 빠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요 1:46)며 소리친 바 있다. 이런 곳에서 예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 삶의 대부분을 보내셨다. 나사렛은 구약성경에서나 요세푸스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 · ·"(사 53:3) 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다.

아마도 나사렛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험악함과 잔혹성 때문에 악명이 높았던 듯싶다(눅 4:16-30). 그곳에는 유명한 학교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거주지로서 그곳은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리적 위치를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었다. 바로 이런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셨고, 아버지 요셉과 같은 종류의 기능직에 종사하였다. 그분의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막 6:3)고 말했다. 만약 나사렛에 어떤 학교가 있었다 해도 예수께서는 그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요 7:15)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이루는 또 다른 부분은 그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다(히 2:18; 4:15). 진실로 이 세상의 임금은 그 분에게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요 14:30). 그 분의 거룩한 영혼 속에는 불화살을 쏘아 불을 붙여 타오르게 할 연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그 분은 추악한 제안들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고뇌에 휩싸였던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아는 한 그 분께서 제일 처음 대적자와 크게 대결한 것은 바로 광야에서다. 그것은 40일간 지속되었다(눅 4:2). 당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이었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간절한 소원 가운데 광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그 분을 괴롭혔다. 시험은 끝까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때 그 대적자는 그 분의 기적을 부르는 능력을 이용하여 사탄 앞에서 당신의 신성을 입증해 보이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그 분을 유혹했다.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불손한 행위를 범하도록 그 분을 유혹했다. 마침내 우상숭배 행위를 단 한 번만 수용하면 엄청난 부와 화려한 영광, 세상의 나라들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홀로 있는 그리스도께 몰려온 이러한 유혹들의 위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공격이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마귀는 잠시 동안 그 분을 떠날 뿐이었다(눅 4:13). 구원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히 4:15).

예수께서는 가난하게 태어나셨듯이 또한 그렇게 사셨으며 그렇게 죽으셨다. 그 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다(마 8:20). 그 분은 주로 공생애를 섬기시는 동안 몇몇 가난하고 경건한 여인들의 조력으로 근근이 사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 분은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다. 그 분이 인두세 납부를 요청 받았을 때, 그 액수가 당신 자신과 베드로를 포함하여 반 크라운(영국의 구 화폐 단위로 25페니의 가치를 지님-역주)에 불과했지만, 기적이 없이는 그 돈을 지불하실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한 또 다른 요소는 고난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 분의 성향에 있

었다.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보다도 그 분은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사 53:3). 그 분은 절망과 슬픔, 속상함과 억울함, 인간들의 배은망덕,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원칙들을 묵살함에서 오는 아픔들을 겪으셨다. 비정하게 거절당함으로 그 분의 거룩한 영혼은 고뇌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 1:10-11).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어느 하나 그 분을 알지 못하였다(고전 2:8).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곤욕을(‘경멸’ 이라 불리는) 치르면서 그 분은 분명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 그 분이 자랐던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회당에서 그 분이 전파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몹시 비위가 상한 나머지 높은 바위에서 그 분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눅 4:16-30). 그리고 그 분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보다 먼저 존재했음을 주장하자 유대인들은 그 분을 치려고 돌을 들었다(요 8:59). 가장 끔찍한 괴로움에서 두 사람을 구하였지만, 그로 인해 돼지 떼의 손실이 뒤따르자 가다라 지방의 온 주민들은 “그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마 8:34). 그 사람들은 평화의 왕보다도 자신들의 돼지 떼, 귀신들려 미친 자들, 그리고 마귀를 더 원했다. 얼마 후 그 분이 재판을 받으실 때, 유대인들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요 19:15)하며 큰 소리를 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더 오래 가르치는 것보다 오히려 살인자가 자신들의 공동체에 풀려나기를 더 원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요 18:40). 그 분의 공생애 내내 그 분을 반대했던 적들의 주모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요 10:24-26). 그렇게 명확하게 입증된 사명은 전혀 없었다. 그러한 명확한 입증이 그토록 악하게 거부된 적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처럼 가혹하고 비정한 경멸의 칭호과 수군거림이 쏟아진 적이 없었다. 적들은 그 분이 미혹하는 자요(요 7:12),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힐난했다(마 11:19). 그들은 그 분이 귀신의 왕과 결탁하였으며,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탄을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히 그 분은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히 12:3). 이런 것들은 그 분의 고상하고 온유한 심성에 끔찍스런 충격을 미쳤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다”(사 52:14). 선지자가 그 분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시 69:20)라고 하였다. 이 선지자는 또 다른 곳에서 그 분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시 22:6-7)라고 하였다.

우리 인종의 연대기들을 살펴봐도 그처럼 놀라운 고난을 겪는 와중에 동정을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분의 역사에 비길 만한 유례가 없다. 그 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분에게 가해진 희롱과 모욕의 말들이 그 원수들에게는 전혀 상스럽게 여겨지지 않았다(마 27:40-43). 그 분이 가장 큰 시련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정의 따뜻한 손길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 분의 “제자들은 다 그를 버리고 도망했다” (마 26:56). 그 분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했던 자는 그 분을 세 번 부인했으며, 심지어 저주하고 맹

세함으로 그리 하였다(막 14:71). 닭이 운 다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때만큼 친구의 표정에 그런 놀라움과 후회, 그리고 책망이 서려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 분은 제자 한 명에게만 부인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제자 한 명에게는 비열한 위선이 가득한 입맞춤으로 배반을 당하였다(눅 22:48). 그 분이 당한 배반의 이면에 있는 보편적 동기는 유다의 타락성이었다. 특별한 동기는 탐욕이었다. 그 지옥의 자식은 모세의 율법에 노예 한 사람의 몸 값으로, 만약 그 노예가 이웃집 황소에게 받힐 경우에 해당 주인에게 지불하도록 정한 단돈 은화 30개에 그를 팔았다(출 21:32). 이 돈에 대한 예언에서 스가랴는 반어적 표현으로 그 액수를 상당한 금액이라 하였다. 그는 그 삯을 경멸하듯이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졌다(슥 11:13).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의 또 하나의 다른 요소는 그 분의 재판에서 쏟아졌던 증언들의 성격이었다. 증인들은 거짓 증거를 대도록 뇌물로 매수되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마 26:59-60).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는 주장이 일치하는 두 명의 증인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그렇게 서로 일치하는 증인들을 찾을 수 없었다. "후에 거짓 증인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였다"(마 26:60-61). 이 증인들은 그 분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었기에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분이 말한 내용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자못 달랐다. "이 성전을 헐라" - 즉, 이 육체를 죽이라 -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그 분께 씌워진 혐의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고 경박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니 예수께서 태연함을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럴 듯하고 심각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분의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자백을 받아내려고 애를 썼다. 우리 주님은 그 때가 입을 열어 "선한 증언" (딤전 6:13)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고], 그 후로 이 증언은 교회에서 아주 보배로운 것이 되었다. 그 분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밝히셨다.

그 분의 재판석에 앉은 재판관이 살아온 삶의 궤적은 그 자신에게도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도 심한 모욕이었다. 역사가 신뢰할 만 하다면, 빌라도는 배신과 탐욕, 잔혹과 아집의 괴물이었다. 앞서 빌라도는 어느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을 짓밟고,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고 있는 그들을 도륙함으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눅 13:1). 생명에 대한 예의나 종교적 숙연함 조차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다. 거듭거듭 그는 예수께서 아무 법률도 위반하지 않으셨고,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음을 인정했다. 그의 아내는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를 넘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예수께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기의 분명한 확신을 따르는 대신, 자기 앞에 선 무고한 피해자의 악의에 찬 원수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 물었다(마 27:18-19; 24; 요 19:12-16). 재판석 주변을 에워싼 군중들의 폭력적인 기세에 눌려, 이 탐욕적이고 우유부단한 인물은 자기 앞에 있는 죄수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에서 유약한 모습을 보이며,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고 말할 뿐이었다(마 27:23). 설득에 실패하자 그는 군중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자신의 인기도 얻고, 예수의 목숨도 구하려고 생각했

다. 그래서 그는 채찍질하도록 그리스도를 넘겨 주었다. 이것은 끔찍한 형벌이었다. 그 분의 등은 맨 살로 드러나고, 양 팔은 들려진 채, 먼저 오른손으로 채찍질이 가해지고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이어졌다. 충격적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가끔 정신이 아찔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적인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사 50:6).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악의로 가득한 군중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또한 재판관의 마음에 아무런 공의로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죄 없는 희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고 말았다(마 27:26). 빌라도는 어떻게 됐나요? 라는 질문이 종종 제기된다. 아마도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의 책임과 그와 비슷한 폭력적 행태로 말미암아 그는 파면되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황제의 뒤를 이은 차기 황제의 미움을 사게 되어 관직에서 강등되어 가련한 추방자 신세가 되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재판의 형식이 모든 정의와 품위에 대한 조롱거리였듯이, 그런 조롱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그 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분을 때렸다. 어떤 이들은 손바닥으로 그 분을 내리친 후,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며 놀렸다. 그들은 그 분의 입은 옷을 벗긴 후, 마치 왕실의 고귀한 인물인 양 홍포를 입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롱 행위였다. 그들은 가시관을 엮어 그 분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분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였다. 그 분을 다 모욕한 다음, 그들은 그 분의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 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마 26:67-68; 27:28-31).

모진 채찍질과 매맞음, 그리고 그처럼 길고도 잠 못 자는 고통이 그 분의 기력을 몹시 쇠잔케 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였다. 우선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 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요 19:17).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십자가 아래서 점차 의식을 잃어가면서 더 이상 그 분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다. 그들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마태에 따르면 그들은 그에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다. 누가에 따르면 그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하였다(마 27:32; 눅 23:26). 이 시몬이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친구인지 적인지, 아니면 그처럼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에 그의 마음이 이끌렸을 것이다. 그가 혼자서 십자가를 오롯이 졌는지, 아니면 눈에 띄지 않게 그 일부만 받쳤는지는 확실치 않다.

앞서 행렬이 진행하면서 그 뒤로 많은 사람들과 그 분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랐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만간 몸소 당신의 고난을 감당해야만 함을 아시고, 또 그 후에 따를 영광을 보시며 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거룩한 도성에 임하게 될 끔찍스런 멸망을 미리 말씀하셨다(눅 23:27-31).

참혹한 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는 다시 벌거벗김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는 참으로 암흑의 시간이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바로 전 날

밤에는 핏기가 서린 땀방울을 흘리셨다(눅 22:44). 이제 그 분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들의 손에 의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과 노예들을 위해 고안된 형벌을 받고 계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신체 내에서 탈구가 발생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은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시 22:14)란 구절을 그렇게 이해한다. 다른 이들은 그것은 참혹한 고통, 마치 모든 뼈들이 탈구되는 듯한 고통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좀 더 개연성 있는 견해일 것이다. 십자가형에 의한 사망 이론은 교살이나 출혈에 의해서가 아닌, 신경 통증으로 인하여 생명이 소멸에 이르는 것이었다. 가장 민감한 신경 감각이 모여있는 사지가 상하고 찢겨졌다. 뼈대가 뒤틀어지는 것은 끔직한 것이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한 자세로 속박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의 역사에 관해 읽기만 해도 그 공포로 자지러질지 모른다. 그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그야말로 처참한 고통이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처형된, 생생하게 묘사된 모습을 보게 되면 틀림없이 졸도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감성을 [다치게 하는 것이] 본 장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다만 예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으며,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를 얘기하려는 것이다.

오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나무! 하지만 십자가의 효력은 그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달리신 그 분의 흘리신 피에 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죽음은 모두 수치스런 것이었다. 우리 주님의 그것은 특히 그리하였다. 그 분은 모든 수치의 흔적들을 내보인 채 두 명의 도둑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것이었기에, 인간적 견지에서 강한 마취제를 처방하여 통증에 무감각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몰약을 탄 포도주"가 제공되었으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막 15:23). 그 분은 다른 원천에서 자신의 위안을 찾으셨다. 그 분께서 무리들의 비난과 잔혹함에 그리 개의치 않으셨던 것처럼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마취제를 [무시해 버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맑은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자 하셨다. 그 분은 스스로 정신을 혼미케 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고자 하지 않으셨다. 무리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제안한 이후에도 얼마 되지 않아 새롭게 조롱을 퍼붓기 시작했다(마 27:42-43).

십자가의 죽음은 종종 저주받은 죽음이라 불리운다. 그것은 정말로 그러했다.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다(갈 3:13). 그는 여기서 신명기 23:22-23을 언급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본문은 그러한 죽음에 언제나 영원한 저주가 잇따른다는 것을 가리치는 것이 아니다. 그 회개한 도둑은 십자가에서 죽어 낙원으로 들어갔으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다.

빌라도가 내린 선고가 완전히 부당한 것이었을지라도, 또 예수님이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해 못 박혀 죽으셨으나(행 2:23), 그 분께서 자원하여, 또한 하나님의 허락 하에 우리의 자리에 서셨던 것이므로, 그 분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율법의 저주"

를 당하셨던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갈 3:13). 그 분은 사람들에게서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가장 쓰라린 고통의 외침이 들려왔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신 후 운명하셨다. 처형 담당자들은 그 분이 사망했음을 인정했으며, 친구나 적 그 누구도 이를 의심치 않았다. 그 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 분이 사망하여 몸이 차가워졌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분께는 그분 자신을 위한 무덤이 없었다. 그 분을 따르던 사람들 중 하나의 사랑이 그 분의 장사를 가능케 하였다. 존경 받는 공회원이며 부유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이전에는 무척이나 소심한 모습을 보여왔으나, 이제는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나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하였다. 그는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막 15: 34, 46). 주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의 삼엄한 경비 속에 그곳에 묻혀 계셨다.

7.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출처: 1857년 7월 5일, 뮤직 홀 로얄 서레이 가든에서 선포된 설교 말씀
저자: 찰스 스펄전(1834-1892): 저명한 영국 침례교 목사. 영국 에섹스 켈베돈에서 출생
역자: 스데반 황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지를 표현하기 위해 "들리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요 12:32-33). 하지만 주께서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기 위해 택한 단어를 주목하라.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혹은 내가 나무에 매달리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들리면"이라고 하셨다. 헬라어로 보면 이 단어에는 영광이 담겨 있다. 즉, "내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높임을 받으면"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주께서는 십자가를 취하셨지만 그 십자가는 주께 영광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주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영광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임으로 영광을 얻으셨다. 사람은 금면류관을 구하지만 주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구하셨다. 사람은 영광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사람이 아닌 벌레"(시 22:6)처럼 되는 것을 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셨다. 그는 허리를 굽히셔서 승리를 얻으셨고 영광은 승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낮아짐에 있다고 여기셨다.

사랑은 언제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먼저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셨다. 만일 내가 영광을 바란다면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를 구해야 한다. 분명히 사람이 그의 동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승리의 행진을 하는 그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지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애국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와 영광은 그의 조국 백성들로부터의 사랑이다. 젊은이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의 가진 모든 것으로 그들을 구한 그 애국자를 섬기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다른 그 어떤 곳보다 십자가에서 가장 큰 사랑을 얻으셨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이 하늘에 계속 앉아 계셨다면 이토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처럼 사랑 받는 것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옷 입은 그룹들과 스랍들과 천사들이라도 저 하늘에 있는 구원 받은 백성 및 이 땅의 구원 받은 백성의 뜨거운 사랑만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왕의 규보다는 못으로 더 큰 사랑을 얻으셨습니다. 당신의 창에 찔린 옆구리는 사랑으로 가득차게 되었으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온 맘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영광을 얻으셨다. 저 아래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높이 오르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하는 것은 그들은 늘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그들 마음을 열정과 황홀한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 인내로 영광을 얻으셨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힘을 시험하였다. 주의 영광이 심겨진 곳은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떨어진 겟세마네 동산이었다. 영광의 면류관은 그의 피로 젖은 땅에 심겨졌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이 영광의 길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는 "자 나의 인내의 때가 왔도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겠다. 그러면 세상은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어린양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갈등과 싸움과 고통을 피하였다면 현재의 엄청난 찬양과 영광의 노래를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아마도 그분의 위대함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그의 마음의 바람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의 험한 시험과 끔찍한 그 날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내와 용맹한 마음과 결코 패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찬양을 부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서 영광을 얻으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그의 사역의 완성으로 보셨다. 그러므로 그는 십자가를 영광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 사역을 완성하면 영광을 얻는다. 비록 북극 지역에서 수천 명이 죽고 그들의 용맹한 행위로 명성을 얻더라도 가장 영광을 얻는 사람은 마침내 길을 찾아 정상에 이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깊은 구덩이의 위험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간 자들을 기억해 줄 지라도 정상에 이른 그 사람은 그의 영광을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는다.

분명한 것은 영광은 사역을 마무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독자들이여,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그의 모든 사역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랐다.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할 수 있으셨다. 그는 보좌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셨다. 그는 그의 주변에서 환호하던 대중의 영광보다 갈보리의 고난을 더 선호하셨다.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치유할지라도 그의 사역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그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답답함을 느끼셨다(눅 12:50). 그는 "나는 내 십자가가 나의 수고의 마침표이기에 십자가를 원한다. 나는 나의 은혜의 위대한 사역이 마무리될 수 있는 나의 고난을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십자가는 영광을 가져오는 마지막 끝이다. 십자가는 싸움 그 자체보다 용사에게 관을 씌우는 영광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그의 수고를 끝마치는 십자가의 죽음을 바랐다. 그는 "그렇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드높여졌고 땅에 들리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그리스도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승리의 시간으로 보았다. 그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든 일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았지만, 그리스도는 표면으로 보이는 십자가 저 너머의 영적인 면을 보았다. 그는 말씀한다. "나의 운명의 교수대인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로 여겨지고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자의 주변에 서서 비난할 것이다. 내 이름은 나무 위에서 죽은 자로 영원히 불명예를 당할 것이다. 비난하며 조롱하는 자들은 내가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고 나의 친구들 앞에서 떠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처럼 십자가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수치를 알지만 무시하며 참아낼 것이다. 나는 십자가를 승리와 성공의 문으로 바라본다. 내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려주겠다. 내 눈이 마지막 눈물방울을 흘리고 내 심장이 고통의 마지막 맥박을 뛸 때, 내 몸이 마지막 고뇌로 뒤틀릴 때, 그때 나의 눈은 뱀의 머리가 깨진 것을 볼 것이며(창 3:15) 지옥의 탑이 무너지고 그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볼 것이다. 나의 눈은 내 후손이 영원토록 구원을 받는 것을 볼 것이다. 나는 구속을 받은 무리들이 그들의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볼 것이다. 나의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 즉 나의 입이 '다 이루었다' 는 마지막 절규를 외칠 때 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나아오는 해를 볼 것이며 나는 나의 모든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며 승리를 외칠 것이다. 그렇다. 나는 그때 내 소유인 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약탈자들을 폐할 것이다. 그때 나는 나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올라 영광스러운 천사들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환호성과 더불어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 날들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승리를 보았고 승리와 영광의 장소와 수단인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며 원하였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존귀하게 되면 ..." (요 12:32).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그의 영광으로 삼았던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의 멋진 생각을 살피며 이 글을 마치겠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 12:32). 그때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의 모든 백성을 하늘로 이끄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로 이끌려지는 영혼들의 마차이다. 주의 백성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고 계시고 자기 보좌로 인도하고 있다. 주께서 드렸던 기도, 즉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요 17:24)는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 기도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주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은혜의 언약의 마차에 태워 강한 군마처럼 자신에게로 이끄신다. 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수영할 때 사용하는 널빤지이다. 십자가는 폭풍우를 몰아내고 바라던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위대한 약속을 담은 운송 수단이다. 십자가는 마차이고 금으로 만든 기둥이며 밑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다.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연결되어 있다.

아! 가련한 죄인이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갈보리에서 바친 주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분의 고통과 피 맺힌 땀을 기억하라. 만일 당신이 죄인임을 시인한다면 이 모든 일은 당신을 위해 행하여진 일들이다. 주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당신에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주께서는 예수의 피로 당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겨주신다."

당신은 하나님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렘 3:22)고 말씀하신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로 인하여 당신이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 나아가 마침내 하늘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 드린다.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한다. 아멘.

~~~~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에는 타오르는 사랑의 숯이 있다. 그 불은 영원전부터 있었고, 그 불꽃은 오늘날처럼 늘 뜨거웠다. 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사랑하며 살아계신다.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명은 우리의 구원이다. 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히 13:8) 일하신다. 하루 중에 한 시간도, 일년 중에 하루라도, 역사 가운데 일년이라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다. 그는 우리를 위해 죽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사랑은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요인이었다. 그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후회하신 적이 없다." 그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 만일 또 죽어야 한다면 또 죽으려 하실 것이다. 그렇다. 만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모든 택한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셀 수 없이 죽으셔야 한다면 사랑 때문에 주께서는 기꺼이 이 모든 죽음을 감당하실 것이다. 오, 우리의 가련한 영혼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여! 주께서는 어떤 목동이 그의 양을 찾아낸 후 즐거워 그 양을 어깨에 멘 것처럼 우리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신다(참조, 눅 15:5).

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아 2:6). 그는 하늘에서 그의 팔에 찬 팔찌처럼 우리를 입으신다. 이에 우리를 기쁨으로 외친다.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세요"(아 8:6). 주님은 그의 손바닥에 우리를 도장처럼 새기고 품으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도다"(사 49:16).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살에 피로 쓴 글씨처럼 새겨져 있다. 주님은 그의 마음에 우리를 도장으로 삼아 찍으신다.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중하여 그들은 하늘에서 주의 심장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요일 4:13).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에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일 4:16).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어깨와 흉패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을 메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의 어깨와 팔과 손에, 그의 가슴에 심장에, 수억만의 백성을 메고 주 앞에 서신다. 오, 주의 사랑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으랴!

- 아이작 암브로스
~~~~

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출처: 토마스 왓슨 목사의 선별집 (The Select Works fo the Rev. Thomas Watson (New York: Robert Charter & Brothers, 1855), 137-140.
저자: 토마스 왓슨 (1620-1686): 영국 비국교파 청교도 설교자 및 저자. 영국 잉글랜드 욕쉬어 출신.
역자: 오병재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빌 2:9)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심, 하늘로 오르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심 등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는 더 높아지실 수 없다. 그리스도의 굴욕 당하심이나 그의 높아지심에 있어서도 그의 신성은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지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높임을 받으신 것이고 그분의 인성이 높임을 받은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는가? 다섯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첫째, 그분의 명칭에서; 둘째, 그분의 직분에서; 셋째, 그분의 승천에서; 넷째,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에서; 다섯째, 그분을 세상 심판자로 세우심으로 높이셨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명칭으로 높이셨다. 첫 번째 명칭: 그분은 주님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행 19:17). 그분은 만유를 다스리는 주이시다. 그분은 천사들과 사람들 위에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 28:18). 그리스도는 그의 손에 세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다: (1) 무덤의 열쇠, 부활의 때에 사람들의 무덤을 여실 것이다. (2) 하늘의 열쇠,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하늘의 왕국을 열어 주실 것이다. (3) 지옥의 열쇠(계 1:18), 저주받은 자들을 불타는 감옥에 가두실 것이다. 이러한 주님께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야 한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 2:10). 이름은 인격체에게 주어진다. 예수님께 거룩한 이름이 주어졌다(눅 1:35). 모든 무릎이 신성한 분의 규 앞에 꿇을 것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복종을 의미한다. 모두가 그분께 아들들로서 또는 포로로서 복종해야만 하고 왕과 심판자에게 하듯 그분께 굴복해야 한다. "아들에게 입맞추라"(시 2:12). 우리는 사랑과 충성으로 주께 입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품에 던져 그분에 의해 구원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의 발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한다.

두 번째 명칭: 그리스도는 군주로 높임을 받으셨다. "그 때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단 12:1). 어떤 사람들은 그를 피조된 천사로 보지만, 그는 "언약의 사자"였다. 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계 1:5)이신 위대한 군주시다. 이 땅의 왕들은 그분에게 받은 왕관을 쓴다. 그분의 보좌는 별들 위에 있고 그분은 자신의 수행원으로 천사들과 천사장들을 부리신다. 이처럼 그분은 영광의 명칭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직분으로 높이셨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어 세상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행 5:31). 모세가 임시적인 구원자가 된 것은 큰 영광이었다. 그렇다면 영혼들의 구세주가 되는 영광은 어떠하겠는가!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눅 1:69)이라 불리셨다. 그분은 죄로부터(마 1:21), 진노로부터(살전 1:10)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왕권에만 속하는 영광의 꽃이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행 4:12). 이 얼마나 그리스도께 영광스러운 것인가! 구원은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만든다. 그들은 그들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할렐루야를 부른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셋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심으로 높이셨다. 만약에 그분이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다면, 그분은 높아지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모든 하늘 위에"(엡 4:10; 눅 24:51) 오르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가장 높은 하늘의 최상에 오르셨고, 바울은 그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다(고후 12:2).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하여 두 가지가 있다.

1. 그리스도의 승천의 방법: (1)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는 처음 순간부터 제자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눅 24:50-51).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집이나 땅을 남기시기보다 축복을 남기셨다. (2) 그리스도는 승리의 정복자로 오르셨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시 68:18; 엡 4:8). 그분은 죄와 지옥과 죽음에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는 믿는 자의 승리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죄와 지옥을 정복하셨다.

2. 그리스도의 승천의 열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시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엡 4:8). 승리의 마차인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는 왕이 그의 대관식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는 것과 같다.

넷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막 16:19).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엡 1:20-21).

하나님의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오른손이나 왼손을 가지신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부분은 없으시다. 이 표현은 왕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도록 하였던 사실에서 가져온 은유적 표현이다. 솔로몬은 그의 어머니를 왕후로 세우고 자리를 만들어 자신의 오른편에 앉혔다(왕상 2:19).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위엄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자리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분의 위격 안에서 신성과 연합된 상태로 지금 하늘 왕좌에 놓여있고 천사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위격 안에서 신성과 연합되어 있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누리는 모든 영광 가운데 인성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린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발전하여 신성과 동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성이 사람과 연합된 가운데 인성이 신성은 되지 못할지라도 놀랍도록 영광스럽게 된다.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천사장들마저 누릴 수 없는 모든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으며, 또한 지극히 높이 오르셨기에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다. 그분은 부활을 통해 무덤 위로 높임을 받으셨고, 승천을 통해 대기와 별들이 있는 하늘 위로 높임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그분은 "모든 하늘 위에"(엡 4:10) 가장 높은 하늘 위로 높임을 받으셨다.

다섯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어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 삼으셨다. "아버지께서 ...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요 5:22).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는 가장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막 8:38). 그분은 아버지처럼 위엄의 예복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마 25:31). 군병들 앞에서 재판장으로 끌려가신 주님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재판장에 서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왕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그를 정죄하였던 빌라도를 심판하실 것이다! 왕들은 왕위에서 내려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이때의 심판은 최고 법정에서 내리는 심판으로써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

적용

1. 배움을 위해

1)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와 이제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다른 상태를 주목하라. 오, 얼마나 장면이 바뀌었는가! 그분이 지상에 있을 때에, 그분은 구유에 뉘어 있었지만, 이제 그분은 왕좌에 앉아계신다. 이 땅에서 그분은 사람의 미움과 멸시를 받으셨지만, 이제 그분은 천사들의 존귀를 받으신다.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은 비난받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빌 2:9). 그분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종으로서 대야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요 13:4-5). 이제 그분은 군주의 옷을 입고 계시고, 세상의 왕들은 그분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던진다. 지상에서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기쁨의 기름으로 부음 받으신다. 지상에서 그분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 땅에서는 아버지는 그분을 버리셨지만, 지금은 아버지께서 그분을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만(사 53:2), 이제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신다(히 1:3). 오, 얼마나 큰 변화인가! "하나님이 또한 그를 지극히 높혀 ..."(빌 2:9).

2)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비천하셨지만 나중에 높임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배우라. 참된 영광으로 가는 길은 겸손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 세상은 겸손을 누군가를 보잘 것 없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지만 겸손은 영광으로 가는 준비된 길이다. 높아지려는 것은 떨어지는 것이고, 올라가려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다. 겸손은 우리를 높여 덕있는 자들 가운데 있게 한다. 겸손은 우리를 높여 하늘에서 더 높은 곳에 있게 한다. "그

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마 18:4). 즉,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더 높은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다.

3)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하신 후에 높임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보아라. 고통은 영광이 있기 전에 지나가야만 한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받는 것은 싫어한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 할 것이요"(딤후 2:12). 악한 자들은 먼저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 후 고난을 당한다. 거룩한 자들은 먼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다스린다. 고난의 길 외에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없다. 영광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외에 없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황금 길과 진주 문이 있는 행복한 성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에 이르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험한 길로 여행해야 한다(행 14:22).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그분은 먼저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고 그 후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2. 위로를 위해

1) 가장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고결하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영광으로 관 씌우셨고 천사들과 천사장들 위에 높이셨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히 2:9)였지만 인성이 신성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음으로써 인성은 천사들 위에 있게 되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성을 그토록 품위있게 하셨다면, 우리가 인성을 더럽힐 경우 얼마나 큰 수치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인성을 천사들 위에 높이셨건만 술주정뱅이는 인성을 짐승들보다 아래에 있게 만든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통치의 열쇠는 그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신다. 당신은 지극히 높이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돌보지 않거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장 놀라운 섭리를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시계 바늘은 교차하여 움직이지만 시간을 알려준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 상반되는 섭리들을 사용하셔서 그의 교회를 구원하실 것이다.

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이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마치셨음을 확신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 10:12).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무덤 속에 누워계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영광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행할 일과 받을 고난을 다 마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높임을 받으셨지만, 결코 그분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어떤 이들은 영광의 자리로 높임을 받을 때 자신들의 친구들을 잊어버린다: 술맡은 관원장이 궁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감옥에 있는 불쌍한 요셉을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으시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으로 높임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의 성도들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의 흉배에 기록된 자기

백성의 모든 이름과 필요를 알고 계신다. 당신은 시험을 받는가?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시지만 당신을 동정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당신은 죄에 대하여 신음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영광의 상태에 계시지만, 당신의 한숨을 들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시 56:8).

5)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신자들도 어느 날 그분이 계신 영광의 장소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로 그들을 위로하신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우리의 높아짐이다.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 원하옵나이다”(요 17:24). 그리고 그분은 신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미리 간다고 말씀하셨다(요 14:24).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불린다(엡 1:22-23). 머리가 영광으로 높임을 받으면 머리와 연합된 신비한 몸도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로 높임을 받으셨음이 분명하듯, 그분은 그의 인성이 존귀함을 받은 모든 영광의 자리에 신자들을 앉히실 것이다(요 17:22). 이곳에서 그분이 성도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이제 곧 그분은 그의 영광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은 가장 가련한 그리스도인에게 위로가 된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머리를 둘 집이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을 쳐다보며 말할 수 있다, “저곳에는 내 집이 있고, 나의 본향이 있다. 나는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을 소유하고 있다. 그분은 그곳에 앉아 계시고, 이제 곧 나도 그분과 함께 그곳에 앉게 될 것이다. 그분은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 나는 내가 그분과 함께 보좌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다”(참조, 계 3:21).

3. 권고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지 않으셨던가? 우리도 그분을 높이도록 하자.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진리를 드높이자.
1)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자. 믿으라! 오, 그분을 찬양하며 사랑하라!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높이 올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는 한없이 높일 수 있다.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높이자. 그분을 찬양하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우리의 말은 성전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림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를 높이자.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주를 높이도록 하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찬양과 기도보다도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인다. 주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를 널리 알리며 높이는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진리를 높이도록 하자. 부촐세러스(Buchholzer, 1529-1584: 독일 개신교 신학자)는 그의 「연대기」에서 폴란드의 귀족에 대해 말하는데,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손을 칼에 대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는 표시를 했다고 한다. 오류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진리들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높이자. 공의를 통한 구원에 대항하여 거저 주시는 은혜의 교훈을 지키도록 하자, 소시니안주의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의 진리를 지키도록 하자.

진리는 그리스도의 왕관의 박힌 가장 밝은 진주이다! 사람이 저축한 목돈을 강탈당하지 않으려고 싸우듯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생명 다해 싸우도록 하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광과 관련된 그분의 진리들을 높일 때, 그리스도는 그 수고를 그분을 높인 것으로 삼아주신다.

~~~~~

모든 신자들은 어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하자. 그분은 오늘날 아버지의 왕좌 위에 앉아계신다. 그분의 머리 위에 있는 많은 왕관들을 보며 기뻐하도록 하자. 무엇보다 그의 머리에는 하늘의 왕의 영원한 왕관이 번쩍거린다. 그분에게는 천사들이 있다. 그룹들과 스랍들은 쉬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 그분의 요청에 따라 가장 강력한 영은 기쁘게 날아서 그분의 명령을 가장 먼 세상까지 전달한다. 가서 말을 전하면 그 일은 마치게 된다. 주의 명령은 기쁘게 준행되었고, 주의 다스림은 엄중히 집행되었다. 그분의 궁정은 거룩한 영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 영들은 그분의 미소로 살고, 그분의 눈에서 나오는 빛을 마신다. 그들은 주의 위엄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반사한다. 하늘에 있는 어떤 영도 그분만큼 거룩할 수 없으며 그분만큼 밝을 수 없다. 이에 천사들은 주 앞에 절하고 주 앞에서는 그들의 날개로 얼굴을 가린다. 더욱이 구속함을 받은 많은 영들은 그분 앞에 기뻐하며 절한다. 그곳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으며 그들은 그분의 보좌를 둘러 노래한다. “죽임을 당하사 자기 피로 우리를 우리 죄로부터 구속하신 그분께 영광 돌리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늘의 왕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충분히 합당하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의 기초가 되는 귀중한 돌을 놓으셨다. 그분은 그 성의 빛이다. 그분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이시다. 그들은 주께 영광 돌리기를 늘 즐거워한다. - 찰스 스펄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붙들 수 있다는 참된 생각은 모든 지혜와 이해, 그리고 지식을 넘어서는, 말로 표현 못할 귀한 생각이다. - 존 오웬
~~~~~

9.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출처: *None Like Christ* (New York: Anson D. F. Randolph, 1868), 21-27
저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1808-1878): 탁월한 복음주의 목사이면서 저자, 영국 펜톤빌에서 출생
역자 : 박기철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우신 분은 없다. 만일 우리가 한번이라도 세상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신적인 영광을 비교할 무엇을 찾는다면, 그것은 모든 신적인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성전에 임하였던 찬란한 쉐키나의 영광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히 10:5). 그 몸은 성령에 의해 준비된 실제 몸이었지만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몸이었다. 또한 영감 받은 시편기자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시 45:2). 그리스도 자신은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자 창시자로서 그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길 고대하는데, 그것은 다양하며 무한한 모습으로 피조물에게서 드러난다. 저 밝게 빛나는 별자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저 타오르는 태양을 그리스도께서 빛나게 하셨다! 모자와 같은 구름에 의해 산봉우리가 덮인 저 알프스 산을 그리스도께서 솟아나게 하셨다! 신록으로 뒤덮인 계곡을 그리스도께서 펼치셨다! 수줍게 얼굴이 빨개진 장미꽃들, 저 우아한 백합화들, 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는 고사리들, 해변을 향해 수많은 팔을 뻗고 있는 꽃처럼 핀 말미잘들, 반짝이며 떨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저 길가의 제비꽃, 구불거리는 시냇가, 울창한 숲,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그리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록으로 옷 입힌 풍경을 만드시고 그 꽃향기로 공중을 채우셨다. 그리고 깊은 바다를 잔잔한 바람으로 물결짓게 하시고, 때로는 무섭고 거대한 폭풍으로 바다를 일렁이게도 하신다. 진실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전 3:11) 오! 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는 자신의 무한한 찬란함이 담긴 이 모든 보석들을 뿌려주심으로써 인류의 죄악 된 집을 매우 부유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신다.

하지만 그 누가 그리스도 그분만의 아름다움을 묘사할 수 있을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의 인격, 너무나 거룩한 그의 성품, 너무나 다정한 그의 마음, 너무나 상냥한 그의 영혼, 너무나 당당한 그의 모습, 너무나 평안한 그의 목소리를 과연 누가 묘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삶과 행위, 그 모든 것은 그의 인성과 영혼과 신성의 완벽함과 함께 매우 정교하고 찬란하여 실제로 그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고, 그 모습을 그릴 수도 없다. 단지 교회는 정확하고 고상하게 표현하길 그는 “많은 사람가운데 뛰어나구나”(아 5:10), 그리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아 5:16)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그와 함께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진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그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지고, 그의 은혜로 꾸며진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이 그들 위에 놓여짐으로써 사랑스럽게 된다.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입혀지고 빛나게 된 이 모든 광대한 피조물보다 더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으로서, 가난한 죄인이 엎드려 회개하고, 믿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얻게 된 생명으로 활기가 넘치는 것이다.

독자들이여! 당신의 눈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는가? 그의 아름다움이 당신의 영혼을 꿰뚫었는가? 그의 아름다움이 당신을 변화시켜 당신을 그리스도와 같은 뜻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당신의 모든 삶에서 드러내게 하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희미하고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머지않아 완전해질 그날에 당신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사 33:17),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양을 둘러싸게 될 정결한 무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힘쓰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우신 분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유명한 불신자는 자신의 눈에 비추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그것은 완벽한 초상화이다!” 그 완벽한 초상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네 자신과 비교해보라. 피조물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인간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그리스도의 뛰어난 아름다움의 광채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

과연 천국에서나 누리게 될 위대한 영광의 친교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찬미 받아야 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광을 그의 아들에게 인치셨다. - 토마스 굳윈
~~~~

10.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묵상

출처: “The Prophetical Glory of Christ” in *The Glory of the Redeemer* (London: John F. Shaw, 1845), 117-123

저자: 옥타비우스 윈슬로우(1808-1878): 탁월한 복음주의 목사이면서 저자, 영국 펜톤빌에서 출생

역자: 신창옥

독자들이여!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당신 앞에 놓여진 그 분의 영광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인가? 임마누엘 안에서 모든 아름다움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을 보는가? 당신의 관점에서 그 분의 영광이 깨어졌는가?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비춰졌는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후 재 가운데 앉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욥 42:5~6)라고 외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당신의 솔직한 대답은 영원에 대한 당신의 현재 소망의 본질과 근거를 결정할 것이다. 그 영원의 경계에 당신은 지금 서 있다. 이는 엄중한 묵상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철저히 검토하고, 선별하고, 영감 받은 말씀과 비교해보는 것은 무한히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당신의 이마에 놓인 관과 당신의 발치에 닿은 왕국 및 노력하여 얻은 세상은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담긴 엄청난 관심과 비교할 때 유아들의 시시한 것들과 같다.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분은 당신의 모든 구원과 모든 바람인가? 당신은 죄로 가득한 자아와 의로운 자아를 그 분의 십자가 아래에 두었는가? 당신은 모든 궁핍과 헐벗음과 천박함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고전1:30)이신 그 분을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그 분의 영광이 다른 모든 영광을 어둡게 하고, 그 분의 아름다움이 당신의 눈앞에 있는 다른 모든 아름다움을 가리는가? 당신은 그 분을 가리키며 믿음의 겸손한 확신과 사랑의 기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아5:16)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없다면 나는 나의 모든 죄의 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속죄의 피가 없다면 저는 저의 모든 죄책 가운데 망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방패를 바라보소서. 그리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지나갈 때(당신의 위엄과 거룩함과 공의의 영광이 지날 때) 나를 바위틈에 두시고, 당신이 지나가시는 동안 당신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 자주 경건한 묵상을 갖도록 하라. 당신의 영혼에 엄청난 유익이 될 것이다. 주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채워지고 확장된 마음은 바깥 세상의 간교한 공격과 침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헛된 생각이 자리 잡을 곳이 없을 것이며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욕망이나 시간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오, 임마누엘의 영광을 분명히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비우게 하고 겸손하게 낮추는지! 족장들과 함께 우리는 “저는 제 자

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외친다. 그리고 선지자와 함께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사6:5)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사도와 함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갈6:14)고 외친다. 당신의 마음이 구속자의 영광에 대한 확대되고 확장된 시각으로 채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구속자의 영광에 대한 모든 발견은 신성한 마음과 위엄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각의 주제와 대화의 주제가 늘 그리스도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제한하지 마라. 당신은 그 책의 서문만을 읽었다고 여기라. 당신은 바다의 일부에 닿았다. 당신을 넘어서서 저 멀리까지 퍼져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름다움들과 귀중한 전망과 반짝이는 영광들이 있다. 이 각각의 요소는 당신의 성장을 장려하고, 연구에 초대하며, 당신의 믿음의 충성과 사랑의 찬사, 그리고 당신의 삶의 헌신을 요구한다.

자, 앞으로 나아가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갈 때 당신에게 계시되어질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고 글로 묘사할 수도 없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약속은 당신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한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계시고, 당신을 그의 사랑의 거실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 분은 아무 것도 감추지 않고 그분 마음의 방을 다 여실 것이다. 그분은 아끼지 않고 모든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한 것 이상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타락한 본성에서 더 큰 죄의 깊이가 드러날 것이다. 당신은 속죄의 피의 깨끗하게 하시는 효능에 대해 더 깊게 느낄 것이다. 사랑하는 그분에게 당신이 받아들여진 것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지 더 알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영광을 더 깊게 맛보게 될 것이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가까워질 것이며, 당신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열매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당신의 발은 암사슴의 발처럼 뛸 것이며, 당신은 높은 곳에서 다닐 것이다. 당신의 평화는 강물처럼 흐르고, 당신의 공의는 바다의 물결 같을 것이다(사48:18). 슬픔은 당신에게 상처를 덜 줄 것이다. 고통은 당신을 덜 무겁게 억누를 것이다. 고난은 당신에게 덜 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든 것들과 무한히 더 많은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에서 비롯된다. 사도가 부풀고 헐떡이는 목마른 영혼으로 외치기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빌3:8,10)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호6:3).

당신의 삶이 구속주의 영광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들이다. 이 어둡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반사경이다. 성령의 임재와 은혜의 샘에서 솟아나는 거룩은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알게 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며 당신을 성숙시켜 당신의 삶의 모든 행위에 성결함과 아름다운 속성을 부여한다. 거룩은 당신이 구속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영광은 당신의 손에 맡겨져 있다. 그 영광은 당신의 관리하도록 의탁되

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참조, 벧후 3:11). 원칙에 정확하게 따르고 행동에서 올곧아야 한다. 혈기를 조심하고 가장 공격이 강한 곳에서 깨어있어야 한다. 마귀의 교활함에 넓게 깨어 있어야 하고, 죄의 침투에 대단히 조심해야 하며, 세상과의 모든 거래에서 매우 엄격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모든 행동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자비롭고 온순하고 용서가 많아야 한다. 아아! 우리는 고작 우리 주님의 위대한 영광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그토록 풍성한 보물을 담기에 무가치하고 불충실하다. 고질적인 연약함과 죽지 않은 죄, 부주의함, 거룩하지 못한 기질, 유혹을 가까이 하는 어리석음 및 진실함과 올곧음의 빈약함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빛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증거를 무력하게 하며,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지! 우리는 현저하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현저하게 쓰임 받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너무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거의 영광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우리의 자세가 계시록의 “태양 안에 서 있는”(계 19:17) 천사와는 너무 다르기에 우리의 빛은 너무 희미하고 꺼질 듯이 깜박거린다. 그리스도와의 하나됨과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사실에 대해 너무 불안하게 의식한다. 이로 인해 연약하고 열매 없는 시들어 버린 신앙만 자랄 뿐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15:4).

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그분 안에 거하도록 얼마나 성도들을 초대하시는지 보라. 그들이 쓰러졌는가? 주님은 그들에게 그 분의 힘을 붙들라고 명하신다.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가? 주님은 그들에게 그 짐을 그 분의 팔에 의탁하라고 명하신다. 그들이 지쳐있는가? 주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위해 주께 기대라고 명하신다. 세상이 그들을 박해하는가? 주님은 그들을 위해 찢긴 사랑의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한 성소에 피하라고 명하신다. 그들은 은혜가 필요한가?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의 바다에서 그들의 빈 그릇으로 마음껏 “더욱 큰 은혜”(약4:6)를 받으라고 명하신다. 부패가 그들을 괴롭히든, 유혹이 그들을 공격하든, 역경이 그들을 슬프게 하든, 구름이 그들을 어둡게 하든, 어떤 필요가 그들을 강요하든, 주님은 사려 깊은 목자로서, 부드러운 형제로서, 믿을만한 친구로서,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성도들을 가까이 이끄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쉬게 하신다.

주님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 안에는 당신을 위한 방이 있다. 나의 크리스천 독자들이여! 당신의 운명이 황량하고 외롭고 친구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슬픔과 고독 속에서 복잡한 사막을 헤치고 나아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생각하며 당신을 바라보고, 지금도 당신을 인도하고 지지하며 돌보시는 분이 있다.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 당신이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분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만 있다면! 오, 당신이 그 분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요15:10)고 매우 부드럽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면! 힘을 내라!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 안에 계신다. 당신은 외롭지 않다. 심지어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의 목자가 당신을 인도하신다. 보혜사께서는 그 분의 날개를 당신에게 펼치고 계시고, 천국이 당신 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 곧 당신은 거기에 이를 것이다. 순례자는 그의 지친 팔다리를 쉬게 할 것이다. 항해자는 그의 안식의 항구에 정박하게 될 것이다. 전사는 그의 갑옷을 벗고 승리의 노래를 외칠 것이다.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라. 그리스도는 당신의 것이고, 하나님도 당신의 것이며 천국도 당신의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누가 당신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롬 8:31) 만약 당신이 이 세상의 선에서 실망을 발견하면 그 실망은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만일 당신의 내면의 부패를 더 알게 되면 그 지식은 오히려 당신을 속죄의 피로 이끌 것이다. 당신에게 폭풍과 폭풍우가 임하면 그것은 오히려 항해를 단축시켜 더 빨리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9:15).

~~~~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을 빼면, 하늘에 무엇이 있겠는가? - 토마스 굳윈
~~~~